

1. 성령 세례

논란받아온 성령세례

성령침례는 교부시대 부터 끊임 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이 성령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 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했습니다. 여느때와 다름 없이 그날에도 논쟁과 반대는 치열 했습니다. “술에 취했다!” “미쳤다!”는 등 이 체험으로 그들은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럴찌라도 그들의 신명한 신앙은 멈출 줄 몰랐으며 오히려 막강한 군세(軍勢)처럼 사탄의 아성(牙城)을 강타(強打)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행 5; 14)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는 그리스도”라는 오늘의 교회는 자만(自慢)하며 소위 20세기판(版)교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논쟁 내지(乃至) 논쟁을 불러오는 이 체험을 원치도 않으며 성령침례가 실상 이들에게는 힘에 겨운 논쟁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방언(方言)이나 열렬한 방언 기도자들은 “비정상”이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비평이야 어떻든지 성령침례는 성서적 체험임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침례는 정상(正常)신자의 체험

의문과 놀라움과 비난이 오순절 날에 생겨나자 사도 베드로는

방어적(防禦的)자세로 일어나서 성령 받은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방언을 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상적 사실로 베드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엘선지는 800년전 게 이 사실을 이미 예언했고, 이사야는 예견(預見)했으며 예수께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물 회고할 때 이 성령침례는 정상적 신자의 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침례는 오순절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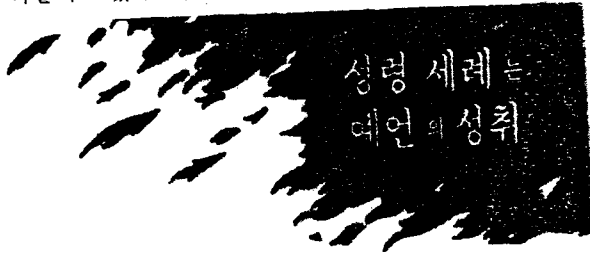


성령침례의 의미(意味)

그러면 “성령침례”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쓰인 “침례(浸禮)란 말은 (원어의(原語意)로는) “전신(全身)이 잠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속에 온 몸이 잠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적어도 어떤 획기적 체험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 깊숙이 잠겼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능력에 감동(感動), 활력(活力), 압도(壓倒)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침례의 수준(水準)에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의 임재(臨在)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성령)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리고 보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제 자들은 믿는 자가 갖는 체험의 어느 정도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더욱 큰 체험을 약속 하였는데 이 약속이 바로 성령침례입니다. “저는 (현재)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장차)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므로 성령침례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定義)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침례를 아직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도의 체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닦아올 성령침례의 역사(役事)에 관하여 말씀해 왔습니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 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일이요 이것이 너희 상례함이니”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28)고 말씀 하실 때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 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순절의 성령에 관하여 미리 부터 많은 비유를 사용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령에 이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 하셨고, “이는 그를 믿는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갈보리 은총의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



방언의 목적

음 24장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 하셨고 예수께서는 또 성령침례를 받을 때에 나타 나는 외적증거(外的證據)로 방언을 말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목적

그러면 이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방언에 관하여 자주 말씀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방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심은 어떠한가를 성경대로 알아 봅시다. 하나님의 견해 만이 우리에게 중대한 요건 이겠습니다.

① 「고린도 전서 14장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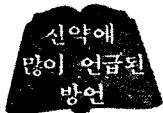
목적은 바로 입증 하시기 위하여 여러가지 표적(징조)을 선택 사용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이 표적(징조)이 앞 섰습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친히 징조(표적)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 다——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사 7; 14).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역사 하시면서 한번뿐 아니라 많은 기적적 표적(징조)을 사용 하셨습니다. 조심성 있는 운전자(街頭)의 표시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신실한 신자는 방언에 대한 신약성경에 나타난 표적을 무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방언은 성도와 주님 상호간의 대화의 수단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은 신자의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무한히 값 있는 대화를 위한 하나의 매개(媒介)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③ 「방언은 일개(一個)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설명된 대로 방언이 하나님께로서 온 은사라면 이 방언을 귀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라면 방언은 위로 부터요 좋고도 온전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 은사 가운데서도 「작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 보다 강하나라.”(고전 1; 25)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작다고 생각되는 은사 일찌라도 인간이 주는 최대의 선물보다 더욱 큰 것입니다. 방언을 주시게 우리는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④ 「방언은 신자라는 신분증명의 표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 여러가지 믿는 자의 특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믿는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침송의 표」는 주님의 원수를 위한 표지만 이 「방언의 표」는 신자를 위한 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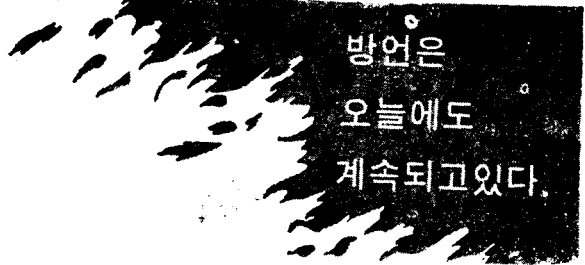
신약에 많이 언급된 방언



많은 교회들이 방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충만」은 좋은데 「방언」은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살펴 보면 말 방언등은 성령침례와 밀접하게 연관이

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행 8; 18, 행 10; 46).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의 설립 당시에 우리는 다시 방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찬양이란 말보다 방언이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바울서신 가운데 찬양에 대한 말씀 보다도 방언 말함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음을 발견합니다.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보다도 방언에 관한 말씀이 신약성경에 더 많다는 사실은 신중히 고려할 문제입니다. 찬양의 중요함을 믿는 교회라면 방언의 중요함도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침례에 대하여 성경의 모순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침례를 명령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조차도 없다고 말씀 하였는데 「거듭난다」는 그 체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인바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아 거듭나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표적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 거듭나는 이 두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重生)—는 것이요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새대를 위한 구원의 계획된 것입니다. 방언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은 오순절이래 한번도 중단 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이 중단 되었다는 사실은 성

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0절에, “은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예언, 방언, 지식등)이 폐하리라”는 말씀이 있을 뿐인데 은전한 것이 올 그 때에는 예언도 지식도 방언과 함께 폐하여 질 것입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여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우리가 그리스도앞에 서게 될 그때에는 현세(現世)에서 갖는 영적 체험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때가 와야만 그런것(예언, 방언, 지식등)이 폐하여질 것입니다.

성령침례가 바라는 완결의 한계 점이 될 경우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 체험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하면서 만족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안에 계시야 할 그 자리에 찾아 오시게 될 때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질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이상의 몇가지 요점

이상의 몇가지 못 점

1.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는 신앙 표준과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표준은 같지 않다.
2.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령침례는 극히 정상적인 체험이고.
3. 성령침례란 말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이다.
4. 선지자들과 침례요한, 예수님 까지도 성령침례의 체험을 말씀 하셨음.
5.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성령침례의 외적증거는 방언이었음
6. 사도행전에 방언의 중요성은 찬양의 중요성 보다 더 많이 언급(言及)되었음.
7. 방언은 일개(一箇) 성령의 은사라는 것.

8. 초대교인들은 방언에 감사했음.
9. 방언이 표적이 되는 성령침례는 신자의 신분증명의 표가됨.

을위한 이 신령한 체험

교회가 오순절로 되돌아 갈 때만 능력은 교회로 되돌아 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 교인을 신령 하게 중생(重生)하도록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교인은 생명 없는 신앙을 소유할 뿐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교회와 교인을 변화시켜 줄 것이며 또이 체험은 1900년 전에 그들이 가졌던 체험과 동일하게 단순한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모든 믿는 자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성서적 체험에 참여 하심을 바랍니다.

Sayadi-al-nas.ae

صيادي الناس

한국연합오순절교회 선교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06-36

전화 613-3959